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 사람의 한 생각이 우주전체로 퍼져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생이나 앞으로 돌아올 미래 생이나 일체 제불이나 다 함께 한자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하로서 또 동서남북,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구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외에도 모습 아닌 모습으로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시고 또는 일체 제불과 더불어 일체 보살도 다 같이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질문부터 하실까요?

답과 싸움으로 인하여 왕승뿐 아니라 왕후들의 원혼을 잘 달래지 못해서 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제국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각산 아래에서는 누구도 끝이 좋지 못하므로 왕가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저도 꼬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불제자들은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뜻으로 몇 마디 해드리죠. 우리가 전부 필요한 점이니까요. 서방정토에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또 <화엄경>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또 <법화경>이라는 것은 선법이나 물질에 사는 사람들의 법이나 똑같이 굴러간다는 그 뜻을 설하신 겁니다.

알고 본다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했던 말은 학(學)으로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한마디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책 한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배워서, 말은 했다 하면, 들었다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몇마디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국토에 부처님이나 다른 부처님 이름들이 수없이 많아서 이 허공에 꼭 찻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으로 섭섭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체에 비유를 해서 전체에 없는 게 없는 것이고 또 아니 비추는 게 없는 것이고 아니 하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관' 실천하는 방편 주세요

▶ 제주지인 심용희의 정회복입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어구에 재직하면서 2년 전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학 진학을 발원하는 마음에서 시간은 워낙 없고 해서 출근하는 차 속에서 1년 가까이 매일 주인공에 관하고, 오분형제, 반야심경을 봉송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교는 제주도 여학생 수학능력시험 전체 수석, 개교 이래 명문대학 최다수 합격 등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도 빠진 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관을 할 때는 '주인공의 나뭇잎' 이렇게 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 관이 잘 안 되는 경우 스님께서는 수많은 설법을 통하여 답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관을 할 수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은 필요하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방편이죠. 우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방편이지만 그 방편이 없어서도 안 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힘이 없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편은 필요한 것만은 매일 관을 할 수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은 필요하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와 나라를 위한 마음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견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중에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선 오백여년 동안에 왕위 계승과

여래불이니 아미타불이니 부처님 이름 수없이 많지만 내 주인공으로 다 연결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즉 말하자면 무아의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들 이름은 수없이 많지만 한 부처님입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생명이 천차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또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요. 또 그 가운데는 천차만별의 업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업보라는 건 무엇인가. 업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전 나중에 있도록 하고요, 여래불이니 아미타불이니 이렇게 수많은 이름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일체 깨우쳤다면, 또 서방국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다 여래불이다 뭐,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 이름이 많지만 그때 그때에 적합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름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을 설하신 뜻은 살아가는 도리를 전파하신 거죠. 그리고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이게 선(禪)으로서 가는 법이죠. 즉 무의 법으로서 선법으로 가는 것이고

리고 인간들에게도 이 생사처를 볼 때, 이 우주에서 모두 생사를 하고 별성도 생산하고 부두철성에서는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 그 도리를 볼 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자유대로 산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아마, 자유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간대 모두가 일붙입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일붙이면서 자신의 자발로 가르칩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신의 자발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생명이 나오고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자동적인 컴퓨터가 제각기 하나씩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으면 그건 순리적으로 다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한 생각이 전국에 퍼지느냐. 그렇다고 해도 됩니다. 또 세계를 말해도 되는 거구요. 이 생각이 라는 건 그렇게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전파를 할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이지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 나무들을 보세



그림·최주현

요. 모습은 하얗게 보일지 몰라도 제 뿌리 없이 그냥 사는 나무 있나 보세요. 그럼 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사느냐? 그럴 때 전부 뿌리 없는 게 없더라. 그리고 씨가 없는 게 없더라. 씨를 심어야 먹더라. 이런 걸 볼 때에 사람이 죽어서 영령들이 어떠한 지역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날때 그대로 거기다가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그냥 전파가 되고 생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진화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마음 공부는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무조건이다 이 얘깁니다. 무조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너는 이제 차원을 올려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해라' 이 려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할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도리가 아니

기 때문에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승의 도리니 소승의 도리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한 생각이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본인들이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도 이걸 잘 해야지' 이런 '게 스스로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걸 안나가게 해야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십시오.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했는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24 시간 동안에 얼마를 봤고 얼마를 들었고 얼마를 만났고 이란데 내가 어떤 걸 만났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한 무더기로 그냥 공했다. 그냥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운전수가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가 즉 자기니까,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보게 하고 듣게 했으

니까 운전수한테 감사하게 말아야죠.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다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것을 다 넘어가도록 해서 풀이 아니게 공심으로 공생으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힘이 없이 생활을 함으로써 공해서 힘이 없다는 도리를 알고 넘어간다면 그냥 편안하게 믿게 되고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진정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지장이나 관세음이나 칠성이나 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죠. 즉 말하자면 누구니까, 일체를 다 알아야 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이게 유의 법에서도 그렇고 무의 법도 그렇지만은 유의 법에서 요만한 거 하나 하나가 거처나가는 것이,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나 데도 큰 결로 이어집니다. 그게, 조그만 거 하나를 잘 못했다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행단체·계모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피고 참배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중국·일본·미얀마·티베트·네팔·태국·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감동과 신행·품격이 있는 성지순례 - 저희 善哉여행사와 함께 하십시오.

<p>달라이라마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9일 ₩2,000,000 출발일 - 12월 12일 (단, 1회에 한함) 델리-기원정사-열반지 쿠시나기르-제 2결집지 바이살라-나란다대학-라지기르, 명옥산, 죽림정사-성도지 보드기야 (달라이라마 친견)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바라나시(겐지스강)-델리 (특급호텔이용)</p>	<p>특선 1</p>	<p>특선 2</p>
<p>인도 성지순례 9일 ₩1,900,000 출발일 - 1월 23일 델리-아그라-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기르-바이살라-나란다-라지기르-보드기야-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특급호텔이용)</p>		
<p>인도 성지순례 9일 ₩1,570,000 출발일 - 11월 28일 델리-아그라-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기르-바이살라-나란다-라지기르-보드기야-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일반호텔이용)</p>		
<p>인도·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산지대탑·아잔타·엘라라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카트만두·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라</p>		
<p>일본 성지순례 5일 ₩1,370,000 출발일 - 12월 15일 오사카-나라-고야산-교토 (법릉사·광릉사 등 17개 사찰 및 유명관광지)</p>		
<p>미얀마·태국·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 ₩2,334,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양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콜롬보-이누라디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아-델볼라-캔디-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탐방)</p>		
<p>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80,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양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 (총 15개 성지탐방)</p>		
<p>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1,310,000 출발일 - 12월 8일, 1월 19일 방콕-콜롬보-이누라디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아-델볼라-캔디-콜롬보-방콕 (총 9개 성지탐방)</p>		
<p>중국 상해·보타산·항주·소주 6일 ₩920,000 출발일 - 11월 28일, 1월 4일 상해 옥불사·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파 아육왕사·천동사-항주 서호성경·영은사·비례봉 석불동굴-소주 한산사·호구·졸정원-상해</p>		
<p>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 ₩680,000 출발일 - 12월 9일, 12월 22일 벽운사·와불사·법해사·운거사·법원사·대종사·법운사 등 북경의 고찰 순례와 만리장성·이화원·천안문 등 관광</p>		

◆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공세, 1억원 보장한도 보험료, 각국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탑은 일체 없습니다.